

女性の 疝症에 對한 考察
- 《東醫寶鑑》 前陰門을 中心으로

배우진, 조준영, 조정훈, 이진무, 이창훈, 장준복, 이경섭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ABSTRACT

Investigation about symptoms named 'San(疝)'

Woo-Jin Bae, Jun-Young Cho, Jung-Hoon Cho, Jin-Moo Lee,
Chang-hoon Lee, Jun-Bock Jang, Kyung-Sub Lee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Seoul, Korea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about symptoms named 'San(疝)', because almost no paper associated with San in Korea since the 1990s.

Methods : Watch an overview of San with the Tonguibogam based.

Results : In the Tonguibogam, according to the Zhang Ja-wha's classification, symptoms named 'San(疝)' are classified into seven kinds. As discussed in the Nephrology of Oriental Medicine, part of the Andrology, symptoms named 'San(疝)' are classified into three kinds, ① San associated with reproductive organs, ② San associated with pain ③ San associated with protrusion. The symptoms of San usually appears in the external genitalia and lower abdomen in both sexes can. The symptoms are called 'San(疝)' to the male and 'Ga(癢)' to the female. In the modern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Oriental Medicine, women's 'San' involves both 'San(疝)' and 'Ga(癢)'. San includes genital protrusion, but not includes vaginal hernia. It also includes genital edema, genital pruritus, genital herpes and bleeding after vaginal sex. San can be raised by many causes. The causes are damages by Coldness(傷寒), Damp-heat(濕熱), Serious distress(思慮過度) and Excessive sexual activity(房勞過多). The treatment for this symptoms is elimination of Dameum(痰飲), Jeokchwi(積聚) and Blood stasis(瘀血).

Conclusion : The symptoms of San usually appears in the external genitalia and lower abdomen in both sexes can. The symptoms are called 'San(疝)' to the male and 'Ga(癢)' to the female.

Keywords : San(疝), Ga(癢), genital protrusion, genital edema, genital pruritus

교신처자(조정훈)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부인과
전화 : 02-958-9162 이메일 : moxa@dreamwiz.com

I. 서론

疝症은 疝, 疝氣 또는 疝病, 疝證으로도 표현되는데 《동의학사전》¹⁾에서는 “고환이나 음낭이 커지면서 아프거나 아랫배가 켉기며 아픈 병증, 한습사가 침범하거나 내상으로 기혈이 제대로 돌지 못하여 생기는데 주로 족궤음간경과 임맥의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 이 밖에 원기가 허한데다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로하여 중초의 기가 아래로 처져서 생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實用中醫內科學》²⁾에서는 “辜丸이나 陰囊이 腫脹疼痛하거나 牽引小腹疼痛하는 질병으로 이 병은 足厥陰肝經과 任脈이 깊이 連繫되어 發病한다. 歷代 文獻에 依하면 疝病에 對한 範疇는 廣範하여 그 種類와 病因을 한마디로 規定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疝症을 주로 腎系內科의 영역으로 보며 男性의 질환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대개 疝症의 定義가 ‘고환이나 음낭이’로 시작하고 ‘疝’이 최초로 언급된 《素門·骨空論》³⁾에서도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라 한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東醫腎系學》⁴⁾에서 疝症을 ‘丈夫學(Andrology)의 篇에서 다루면서 ‘性器 疾患’의 조항에 포함시켜 “疝病은 浩繁한 病證으로 疝病에 對하여 內經에 처음 收載된 이래 歷代 醫家들이 疝病을 論述하여 왔으나 疝에 對한 概念을 理解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疝病의 3大 分類’에서 疝病을 ① 前陰疝 ② 痛疝 ③ 脫疝으로 나누었는데 脫疝의 설명에서 “... 女子의 陰戶가 菌覃과 같이 脫陰되거나, ...”라 하여 女子를 언급하였다. 이는 ‘丈夫學’의 범주에서 다루면서도 남자의 질병만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婦人科영역에서도 ‘疝’은 다루어지는데 주로 ‘疝瘕’로 불리워진다. 《漢方婦人科學》⁵⁾에서 ‘性器病’으로 분류하여 그 안의 ‘疝瘕와 痞塊’의 조항에서 “疝瘕 痞塊는 모두 積聚의 특수한 一類型으로 ‘疝’은 小腹急痛症을 말하고, ‘痞’는 心下

阻滿症을 말하니, 疝瘕라 함은 小腹急痛을 同伴하는 積聚이고, 痞塊는 心下阻滿을 同伴하는 積聚이다. 따라서 疝瘕는 瘕瘕의 特殊한 一類型으로 女性에게 많고, 痞塊는 男女의 區別은 없으나 肚腹內의 積聚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韓醫婦人科學》⁶⁾에서는 “疝은 痛이라는 의미인데 小腹痛이 腰脇部까지 미치는 것이다.”라고 簡略하게 소개 되어있다.

1990년대 이후 疝症과 관련된 국내의 논문은 극소수로 女性의 疝症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論者는 疝症의 概要를 《東醫寶鑑》⁷⁾의 前陰門을 中心으로 疝症의 概要를 살펴보고 女性의 疝症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疝症의 概要

1) 疝症의 原因 [疝病之因]

① 內經曰, 病在小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 得之寒.

② 疝者, 寒氣結聚之所爲也. <內經>

③ 疝者, 辜丸連小腹急痛也. 辜陰丸也. 有痛在辜丸者, 有在五樞穴邊者, 皆足厥陰之經也. 或有形, 或無形, 或有聲如蛙, 有形如瓜. 自素問以下, 皆以爲寒, 理固然也. 予思之, 此病始於濕熱在經, 鬱而至久, 又感寒氣外束, 所以作痛. 若只作寒論, 恐爲未備, 人有踢水·涉水, 終身不病此者, 無熱故也. 蓋大怒則火起於肝, 醉飽則火起于胃, 房勞則火起于腎, 火積之久, 母能令子虛, 濕氣便盛. 厥陰屬木, 係於肝, 爲將軍之官, 其性急速, 火性又暴爲寒所束, 宜其痛之太暴也. 有以烏頭·梔子作湯服之, 其效亦敏, 然濕熱又須分多少而治, 濕者腫多, 瘕病是也. <丹心>

【考察】

疝症의 原因으로 《內經》에서는 주로 ‘寒’을 지목하였으나, 朱丹溪는 “이 병의 초기에는 습열이 경맥에 몰린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었을 때 또 찬 기운이 들어와 겉에서부터 억제하면 아프게 된다. 그러나 오직 찬 기운으로만 생긴다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는 이론이 못 된다고 본다.”고 하여 ‘寒’이전에 ‘濕熱’이 있어야만 이 병이 생

긴다고 하였다.

五樞穴은 足少陽膽經과 帶脈의 會穴로 赤白帶下, 男子寒疝, 子宮炎, 子宮痙攣, 辜丸炎, 背腰痛, 肩背痛, 腹痛, 消化不良, 腸痙攣, 便秘, 裏急을 主治⁸⁾한다. 五樞穴 주변의 통증은 卵巢와 子宮의 질환과 많은 관련이 있다.

2) 疝症의 分類 [疝病有七]

① 疝名雖七, 寒疝卽疝之總名也. 水疝卽癪疝之屬, 氣疝卽狐疝之屬, 血疝卽癰疝之屬, 惟筋疝罕見之, 蓋下疳瘡之屬也. <綱目>

② 七疝者, 寒疝·水疝·筋疝·血疝·氣疝·狐疝·癪疝是也. <子和>

③ 曰疝, 曰奔豚, 曰小腸氣, 曰膀胱氣, 通謂之腎氣. <直指>

④ 癪有四種, 曰腸癪, 曰卵癪, 曰氣癪, 曰水癪. <千金>

⑤ 癪疝之中, 有木腎者·有偏墜者. <入門>

⑥ 陰癪屬肝, 系宗筋, 胃陽明養之. 世多不識, 謂之外腎, 非也. <三因>

⑦ 又有七疝, 一曰厥疝, 二曰癪疝, 三曰寒疝, 四曰氣疝, 五曰盤疝, 六曰附疝, 七曰狼疝. <聖惠方無證>

⑧ 戴氏曰, 疝本屬厥陰一經, 俗說小腸·膀胱·腎氣者, 皆妄言也. <丹心>

【考察】

《東醫寶鑑》은 張子和의 《儒門事親》의 七疝 분류를 따랐는데, 이는 疝을 가장 有力하게 集約한 것으로 思料되고 臨床上에 있어서도 基礎가 되고 있다⁹⁾. 寒疝, 水疝, 筋疝, 氣疝, 狐疝과 癪疝 등은 증상이 주로 음낭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중 癪疝은 '婦人陰門挺出, 亦稱癪病'이라 하여 陰挺을 퇴산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리고 血疝은 음낭의 증상은 없고 다만 '누런 오이같이 생긴 멍울이 아랫배의 양 옆, 곧 치골의 양쪽 끝 아랫배와 넓적다리 사이의 깊은 금이 있는 곳에 생기는 것인데'라고 하여 부인과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3) 疝症의 症狀 [疝病證候]

① 內經曰, 小腹控辜引腰脊, 上衝心, 唾出清水, 及爲噦噫, 邪在小腸也.

② 靈樞曰, 腎脉生病, 從小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③ 小腹痛有三. 肝病小腹引脇痛, 小腸病小腹引辜丸·腰脊痛, 膀胱病小腹痛腫·不得小便. <綱目>

④ 疝之爲病, 外腎·小腹作痛, 或攻刺腰脇, 或遊走背脊, 或冷氣搶心, 或手足厥冷. 有壯熱惡寒者, 有洒淅寒熱者, 有不得大小便者, 有下泄者, 有自汗者, 有積聚如盃·如臂·如桃李·如盤大. 其於陰間則卵有大小而上下不常, 囊有腫脹痛歇無定, 挾冷·觸怒則塊物上衝心胸, 心平氣和則塊物歸入囊中. <直指>

【考察】

《內經》에서는 小腹과 辜丸의 통증 그리고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였다. 樓英은 《醫學綱目》에서 小腹痛을 셋으로 나누어 肝病, 小腸病 그리고 膀胱病으로 구분하였다. 楊士瀛은 《仁齋直指》에서 음낭과 아랫배가 아픈 것, 허리와 옆구리가 쑤시고 통증이 등골로 왔다갔다 하는 것, 으슬으슬 춥다가 열이 나는 것, 대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설사하거나 저질로 땀이 나는 것, 적취가 생기는 것, 음낭의 크기 변화와 오르내림 그리고 멍친 것(塊物)이 치밀어 오르거나 내리는 것 등을 말하였다. 이에서 보건대 疝은 아랫배나 고환의 통증 그리고 대소변불통 등의 전형적인 疝症 이외에 積聚 등의 증세를 보이는데, 이는 부인과에서 산증을 주로 지칭하는 '疝瘕'의 병증임을 알 수 있다.

4) 疝症의 治法 [諸疝治法]

① 疝痛屬濕熱, 痰積流下作病, 因寒鬱而發也. <丹心>

② 疝痛之證, 古方用辛溫之劑以散之, 是治其標也. 丹溪以爲痰飲·食積·死血流注, 歸於厥陰肝經, 用辛平之藥以豁痰, 消積·破血, 是治其本也. 夫疝痛有定處, 是有形之積也, 非痰飲與食積·死血相聚而何哉. 若是無形之氣作痛, 則走注滿腹而流散於遍身矣. <方廣>

③ 治法大要, 以流行疎利爲先, 母曰腎虛, 得病不敢疎泄, 蓋腎爲邪氣所干, 若不逐去病根, 病何由愈. 倘或姑息補住, 使大小府秘而不通, 邪氣入腹衝心, 危殆必矣. <直指>

④ 凡疝痛走注·無形者，屬氣也。痛有常處而有形，乃濕痰·食積·瘀血也。〈入門〉

⑤ 此疾雖因虛而得，不可以虛驟補。經云，邪之所湊，其氣必虛，留而不去，其病即實。故必先滌去所蓄之邪，然後補之。諸藥多借巴豆氣者，蓋爲此也。〈本事〉

⑥ 疝有挾虛而發者，其脉不甚沈緊，而豁大無力者是也。其痛亦輕，惟覺重墜牽引耳。當以參·朮爲君，疎導藥佐之。疎導卽桃仁·山查·枳實·梔子·茺蔚·川練·玄胡索·丁香·木香之類是也。〈丹心〉

⑦ 諸疝，以手按之大痛者爲實，不痛者爲虛。〈丹心〉

【考察】

許濬은 治法에서도 朱丹溪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方廣의 저서를 인용하여 古方에서 “疝症으로 아플 때 맛이 맵고 성질이 더운 약을 써서 발산시키라”고 한 것은 標治이고 丹溪가 “痰飲이나 食積이나 死血이 족궤음간경으로 몰려 들어갔을 때는 맛이 맵고 성질이 평순한 약으로 담을 풀리게 하고 積을 삭히며 굳은 피를 해쳐야 한다”고 한 것은 本治라고 하였다. 이어서 “대체로 산증 때 일정한 곳이 아픈 것은 형체가 있는 적이 있기 때문이다.”고 하고 “痰飲이나 食積이나 死血로 생긴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 하였다. 楊士瀛의 《仁齋直指》를 인용하여 ‘治法大要，以流行疎利爲先’이라고 하였다.

《東醫寶鑑》積聚門의 ‘癥瘕疝證治’에 《醫學入門》을 인용하여 “癥者，堅而不移。瘕者，堅而能移。皆因痰飲·食積·死血而成塊。積聚·癥瘕·疝瘕，其實一也。”라 하였다. 이에서 볼 때 積聚·癥瘕·疝瘕 뿐만 아니라 疝症도 사실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婦人의 外性器 疾患

1) 陰挺·陰脫

① 瘻疝，在婦人則爲陰戶突出，名曰陰瘻。〈正傳〉

② 陰中突出，如菌·如鷄冠，四圍腫痛，乃肝鬱，脾虛下陷。〈入門〉

③ 陰挺出一條，尺許，痛墜·尿澁。〈入門〉

④ 陰中生一物，漸大，牽引腰腹膨痛，此因多服熱藥，或犯非理房事，無意淫不遂，名曰陰挺。〈得效〉

【考察】

《醫學正傳》에서 瘻疝이 婦인에서는 陰戶突出이니 陰瘻라 한다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음문으로 버섯 같은 것이나 닭의 벧갈이 생긴 것이 빠져 나와 그 돌레가 붓고 아픈 것은 肝鬱과 脾虛下陷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歸脾湯이나 補中益氣湯에 加味하여 처방하였다. 瘻疝은 남자의 음낭이 뒷박만하게 커지는 病症이며 婦인의 陰門이 돌출 되는 것도 역시 같은 病症으로 疝症으로 볼 수 있다. 陰脫은 주로 產後陰脫로 疝症과는 무관하다.

2) 陰腫·陰痒·陰瘡·陰冷·交接出血

① 陰腫痛極，便秘欲死。〈入門〉

② 陰戶腫痛不閉，寒熱·尿澁。〈入門〉

③ 婦人陰戶生瘡，乃七情鬱火，損傷肝脾，濕熱下注也。〈入門〉

④ 陰內下疳瘡，因月後便行房，致成濕濁，伏流陰道，遂生疳瘡，與男子妬精瘡略同。〈得效〉

⑤ 陰中生濕蠱瘡，蟲如小蛆，乃濕熱鬱滯也。〈入門〉

⑥ 陰中生細蟲，痒不可忍，蝕入藏府卽死。令人發寒熱。〈入門〉

⑦ 濕痒出水痛者，憂思過傷所致。〈入門〉

⑧ 交接出血而作痛，乃房室有傷，由肝火動脾，而不能攝血。〈入門〉

【考察】

陰門이 붓고 덩시 아프면서 便秘가 있다든지, 음문이 붓고 아프면서 대변은 막히지 않고 촉다가 열이 나며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것과 음문이 허는 것 등은 七情으로 몰린 火에 肝脾가 상하여 濕熱이 아래로 몰렸기 때문이다. 陰蝕瘡이나 濕蠱瘡 등도 역시 濕熱이 몰렸기 때문이다. 음부가 축축하면서 가렵고 굵으면 진물이 나오며, 아픈 것은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생각하여 상했기 때문이다. 고접출혈은 性生活로 인한 것이다. 이로써 볼 때 濕熱이나 性生活이 지나쳐서 화가 발생하여 생기는 病機는 疝症과 같다.

III. 고찰

疝症은 《東醫寶鑑》前陰門에 疝病으로 소개 되어 있다. 7疝의 분류에 의하면 ‘疝’의 형태로 칭하게 된다. 《素問·長刺節論》에 “病이 小腹에 있고, 腹痛·大小便不通 등의 症狀이 있는 것을 疝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한 《素問·平人氣象論》에는 “聚氣로 疼痛하고 小腹이 冤熱作痛하고 煩熱이 있는 病을 疝瘕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素問·骨空論》에서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라 하여 同一한 任脈의 病理에 의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병명을 달리하였다.

朱丹溪는 “疝者, 辜丸連小腹急痛也. 辜陰丸也. 有痛在辜丸者, 有在五樞穴邊者, 皆足厥陰之經也.”라하여 辜丸과 小腹의 통증에 더하여 五樞穴 주변의 통증을 말하였다. 五樞穴은 足少陽膽經과 帶脈의 會穴로 赤白帶下, 男子寒疝, 子宮炎, 子宮痙攣, 辜丸炎, 背腰痛, 肩背痛, 腹痛, 消化不良, 腸痙攣, 便秘, 裏急을 主治한다. 이에서 보건대 五樞穴 주변의 통증은 卵巢나 子宮의 질환과 관련이 깊다 하겠다. 宋⁵⁾은 一般的으로 瘕瘕에 해당하는 婦人의 子宮筋腫이나 卵巢囊腫 등은 腫瘍가 相當히 巨大하게 增殖하여도 下腹痛을 惹起하지는 않음을 勘案할 때, 疝瘕라 함은 卵巢囊腫의 莖捻轉痛이나 혹은 性器의 炎症을 併發한 筋腫 및 囊腫 등의 症候群에 해당한다 하겠다고 하였다.

7疝의 분류에서 瘕疝은 ‘婦人陰門挺出, 亦稱瘕病’이라 하여 陰挺을 퇴산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리고 血疝은 음낭의 증상은 없고 다만 ‘누런 오이같이 생긴 멍울이 아랫배의 양 옆, 곧 치골의 양쪽 끝 아랫배와 넓적다리 사이의 깊은 금이 있는 곳에 생기는 것인데’라고 하여 부인과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楊士瀛은 《仁齋直指》에서 “疝之爲病, 外腎·小腹作痛, 或攻刺腰脇, 或遊走背脊, 或冷氣搶心, 或手足厥冷. 有壯熱惡寒者, 有洒淅寒熱者, 有不得大小便者, 有下泄者, 有自汗者, 有積聚如盃·如臂·如桃李·如盤大.”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男

자와 女子의 症狀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素問·玉機眞藏論》에 “弗治, 脾傳之腎, 病名曰疝瘕”라고 하였다. 宋⁵⁾은 脾가 肝邪를 受하고 다시 腎에 傳하면 脾의 運化機能이 弱화하여 寒邪가 水臟에 入하므로 成積作痛하게 되니, 이는 木剋土 土剋水의 理致이다. 여기에서 水臟이라 함은 腎을 말하고 胞宮은 水臟에 屬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疝瘕 痞塊는 모두 積聚의 특수한 一類型으로 ‘疝’은 小腹急痛症을 말하고, ‘痞’는 心下阻滿症을 말하니, 疝瘕라 함은 小腹急痛을 同伴하는 積聚이고, 痞塊는 心下阻滿을 同伴하는 積聚이다. 따라서 疝瘕는 瘕瘕의 特殊한 一類型으로 女性에게 많고, 痞塊는 男女의 區別은 없으나 肚腹內의 積聚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王綸은 《明醫雜著》¹⁰⁾에서 “且夫遺溺閉癰, 陰痿睥痺, 精活白淫, 皆男子之疝也, 不可妄歸之腎冷. 血潤不月, 月罷腰膝上熱, 足覽, 陰乾, 瘕閉, 小腹有塊, 或定或移, 前陰突出, 後陰痔核, 皆女子之疝也. 但女子不謂之而謂之瘕”라 하여 疝症에 있어서 男子의 증상과 女子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女子의 산증은 ‘疝’이라 하지 않고 ‘瘕’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疝症은 주로 外性器나 小腹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다만 女性에게는 ‘疝’이라는 표현 대신 ‘瘕’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婦人科에서도 ‘疝’ 또는 ‘疝症’을 ‘疝瘕’의 病症으로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女性의 疝症을 ‘疝’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疝症의 概要와 부인과에 있어서의 산증의 의미에 대하여 《東醫寶鑑》前陰門을 中心으로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疝症의 症狀은 주로 外性器나 小腹에서 나타나고 男女 모두에게 있다.
2. 疝症이 있을 때 男子는 ‘疝’이라 하지만 女

子是 ‘瘕’라고 달리 칭한다.

3. 現代의 婦人科에서는 女性の 疝症을 ‘疝瘕’의 病症으로 포괄하였다.

VI. 참고문헌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서울: 여강출판사. 1989;482.
2. 方藥中.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426-428.
3. 金達鎬, 李鍾馨(共編譯). 黃帝內經素問(下). 서울: 圖書出版醫聖堂. 2001;182.
4. 杜鎬京(編著). 東醫腎系學(下).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91;621.
5.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2;259-261.
6. 韓醫婦人科學 教材編纂委員會. 韓醫婦人科學(上).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2;304
7.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803-831.
8. 崔容泰 外.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640.
9. 崔鍾百. 疝症에 對한 文獻的 考察. 東西醫學. 1993;18;3:66.
10. 王綸. 明醫雜著(中國古籍整理叢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18-19.